

濟州島家族의 檢討

— 世帶規模의 東西差 —

松本誠一

秦恩淑 譯

目 次

- | |
|------------------|
| I. 世帶規模의 韓日比較 |
| II. 濟州島 家族研究의 現況 |

I. 世帶規模의 韓日比較

1. 世帶規模의 家族慣行

「현재학적 연구에 기초를 두어, 기층문화와 사회조직을 주변의 제민족과 비교」하기 위하여 蒲生正男씨는 「가족, 혼인, 친족, 지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우선 일본의 이러한 제요소들의 특징을 정리하였다(蒲生, 1979). 그 논문에서 蒲生씨는 가족에 관하여 1960년 일본 전국의 세대통계상에서 볼 수 있는 「세계규모의 지역차」(東北日本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대규모가 크고, 西南日本에서는 작다)를 민속적인 「가족관행의 지역차」(東北日本の 姉相續, 西南日本の 末子相續·隱居制)에 따른 현상으로 결론지어 설명하고 있다. 세대통계와 가족관행을 관련시켜 설명하는 이러한 수법은 1947년 상주인구조사의 결과를 자료로 한 「府縣別 平均家族人員」의 圖表(泉·蒲生, 1952) 이래 지속

되어 오는 蒲生씨의 연구방법으로 이 도표는 그의 저서인 『日本人의 生活構造序說』에도 실려 있다. (圖1의 일본 부분 참조)

필자는 이러한 방법을 한국에 응용하기를 시도하여 우선 해방 이전의 朝鮮과 해방 이후의 韓國에 대해, 『朝鮮國勢調查』 『人口·住宅 센서스』를 기본자료로 삼고 道別 平均世帶人員을 산출해 본 적이 있다 (松本, 1987a). 본고에서는 그후, 다른 기회에 발표한 것까지¹⁾ 포함하여, 한국내에서 세대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인 濟州島에 관하여 세대규모와 가족관행의 문제를, 기존의 논고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세대규모를 통계적으로 다룰 경우, 崔在錫씨 등이 자주 사용하는 人員別 家族數의 出現實數 및 比率 산출방법을 日本事例에 응용·비교하는 전개법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으나 여기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蒲生씨가 취한 『平均 家族員數』 내지는 『平均 世帶員數』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韓日比較란 시각하에서 이미 內藤莞雨씨는 九州의 相續慣行의 형성기반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한국 및 전라남도·제주도의 「농가 한 가구당 평균가족원수」를 인용하면서 제주도 세대의 소규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內藤씨는 1964년의 「센서스」 수치로서 「全韓國 6.35명, 全羅南道 6.45명, 濟州島 4.45명²⁾」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원래의 자료 출처는 농수산부 통계이므로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센서스」란 일본의 국세조사에 상당하는 「人口 센서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內藤씨는 水田地帶인 全羅南道는 6.45명으로 많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畑作地帶인 濟州島는 4.45명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후에 알 수 있듯이 보다 과거의 韓半島 전역에 대해서는 畑作地帶가 오히려 세대규모가 크고, 水田地帶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이전에 善生永助씨는 사용인·동거인을 포함시키면 인구밀도가 높은 남부 지역에 大人員 세대가 많지만 이를 제외한 대가족 세대는 서부·북부지역

1) 제40회 日本民俗學會(1968, 茨城大學)에서 “세대규모의 한일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

2) 內藤莞爾(1979a), p.10, (1979b) p.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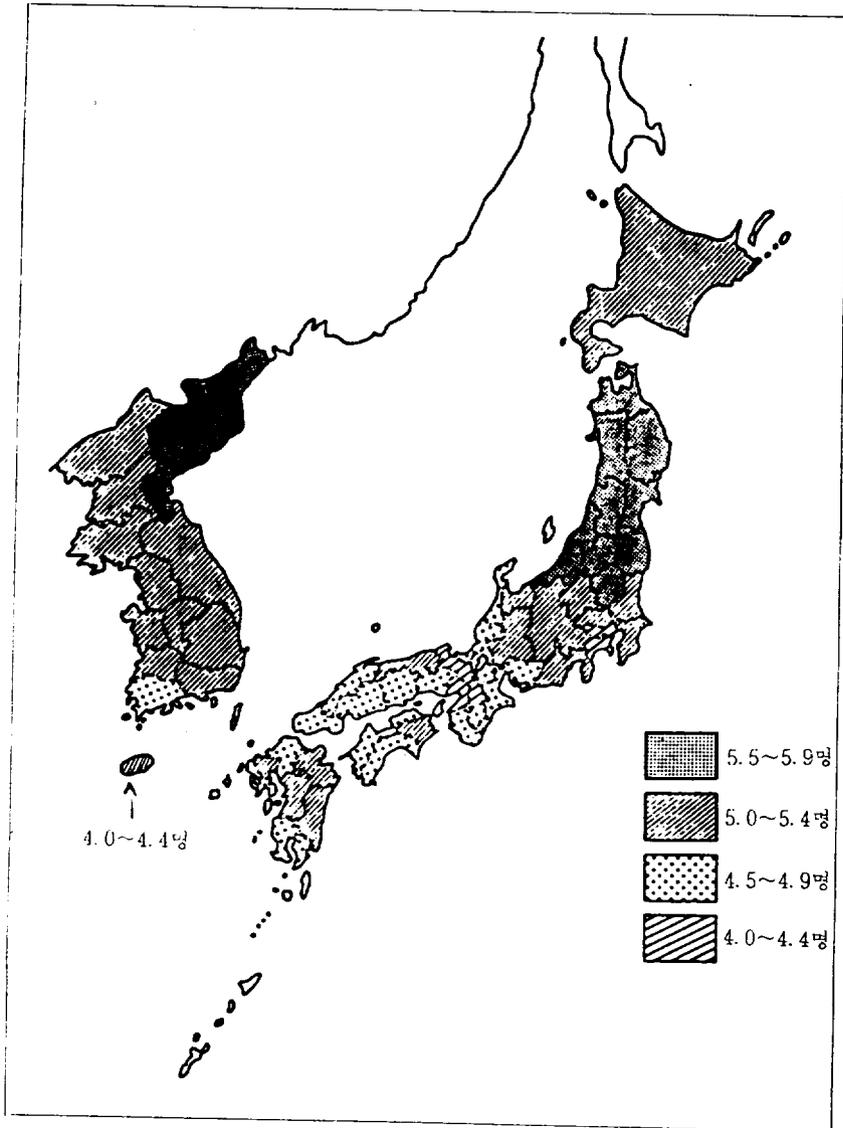


圖1 世帯規模의 韓日比較

註) 日本은 1947年, 韓半島는 1925年 現在

에 많이 분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³⁾ 全羅南道와 濟州島의 관계에 한해서는 内藤씨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水田地帶-大規模世帶」「畑作地帶-小規模世帶」라는 도식은 성립되지만 韓半島 전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도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세대는 한국보다 항상 소규모였다. 「韓國의 大家族制度」라는 말은 이전의 社會雜誌 등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문제의 재검토라는 과제도 당면문제의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 보다는 각각의 세대규모를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선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세대규모와 가족관행에 대해서 일본에서 전개했던 것과 동일수법으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과 그 전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世帶規模의 地域性

第1回 朝鮮國勢調査(1925, 大正14년)에서는 平均 世帶規模 「4.00~4.49명」이 濟州島(당시 제주도는 전라남도예 속해 있었으나 비교의 편의상 전라남도에서 제외하여 산출), 「4.50~4.99명」이 全羅南道(제주도 제외), 「5.00~5.49명」이 全羅北道·慶尙南道·慶尙北道·忠清南道·忠清北道·京畿道·黃海道·江原道·平安南道·平安北道, 「5.50~5.99」이 咸鏡南道·咸鏡北道였다. 韓國에 있어서도 동북부지역이 세대규모가 크고, 남서부지역이 세대규모가 작다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圖1의 조선 부분)

1879년의 朝鮮開港에서 韓國統監府(1905~1910), 朝鮮總督府(1910~1945)가 개설되었던 반세기 동안에 民事慣習·地方制度 등의 영역에서 일어난 「日本化」 정책·실시·결과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의 민속전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나 현재의 상태는 그 시대의 庶民史料 발굴과 역사연구의 진전이 시급히 요청되는 단계에 머물어 있다.⁴⁾ 그렇게

3) 善生永助(1943). pp.111~112

4) 韓國統監府期, 조선총독부 초기의 호구조사·舊慣調査에 대하여 松本(1987b)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다.

까지는 지역사회의 민속문화에 「日本化」의 물결이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1906년 10월에 조사된 「韓國人 戶口」(『第一次 統監府 計年報』)에서는 「3.00~3.49명」이 제주도, 「3.50~3.99명」이 충남·경북·전남·전북, 「4.00~4.99명」이 경기·충북·경남·황해·평남·평북, 「4.50~4.99명」이 함남·강원, 「5.00~5.49명」이 함북으로 여기서도 동북부의 세대규모가 크고, 남서부가 작다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1925년의 세대규모의 지역별 경향도 「日本化」 이전의 가족형성 관행을 투영하고 있는 수치로 간주할 수 있다.

3. 濟州島의 世帶規模

1929년 이후의 도별 세대규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陸地」部の 諸道(여기서 「陸地」란 섬에 대한 「本土」의 뜻으로 사용되는 慣用語이다.)와 濟州島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근년에 나타나는 대략적인 경향을 보면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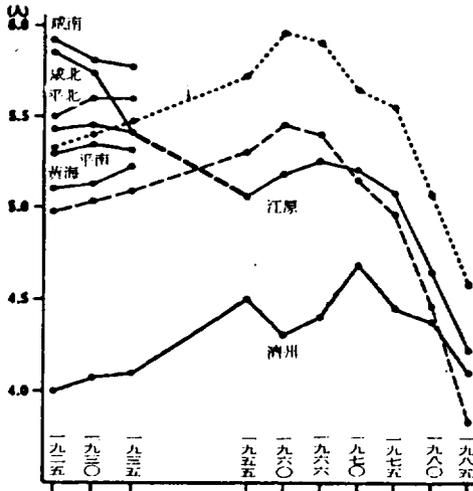


圖 2 道, 特別市, 直轄市別 家口規模의 變化

註) 濟州와北韓 江原道는 實線으로 표시했다. 다른 韓國各道는 破線으로 사이에 圈으로 變化하고 있다.

년대부터 「육지」부에서는 세대의 소규모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제주도는 1960년대간은 세대의 대규모화의 추세가 강하여지다가 1970년대부터 소규모화로 전환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육지」부와 제주도가 동일 그룹에 收束되고 있다(圖2).

이상의 자료에서 제주도 세대의 소규모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泉鎭一씨는 전라남도 제주도 「濟州島勢要覽」(刊行年 未詳)에 게재된 도청

통계를 자료로 하여 1916년부터 1935년까지 평균 세대규모는 약 5명에서 3.9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왔다.⁵⁾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만을 보면 「5명」은 육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세대의 소규모성은 1910~1945년간, 즉 일제 36년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가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점, 前掲의 자료 및 1909년의 『朝鮮總監府 統計年報』에서는 제주도의 세대규모는 「육지」에 비하여 작다(후자에서는 3.72명)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주도의 인구 세대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로 제주도 내부의 지역성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925년에 제주도 내부에서는 「3.50~3.99명」이 新右(滙月) 팔호내는 1953년 이후의 面 명칭)·舊右(翰林)·大靜(大靜)·中(安徳)·左(中文)·右(西歸)의 西部諸面과 東部の 東中(表善)面に 「4.00~4.49명」이 西中(南元)·旌義(城山)·舊左(舊左)·新左(朝天)의 東部諸面과 濟州(濟州邑), 「4.50~4.99명」이 전라남도예 가까운 도서지역인 楸子(楸子)面に 보인다. 여기서 거의 동부지역의 세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서부지역은 작다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984년 11월 1일 현재의 「常走 人口調査 結果要約」에 의하면 한가구당⁶⁾ 평균인원이 4명 미만인 행정洞里는 제주시내의 몇지구를 포함하여 북제주군 서부지역에 집중하여 있다.

4. 世帯規模 比較의 問題點

우선, 圖1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세대규모가 큰 지방간의 가족관행 비교와 세대규모가 작은 지방간의 가족관행 비교의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가족·친족조직의 비교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나 이러한 지역 선정을 한 비교는 필자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5) 泉靖一(1966), p.75表

6) 「家口」는 한국의 인구통계용어로서, household에 대응한다. 이전은 「世帯」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가구」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있다. 일본의 「세대」의 정의와 세부에서는 다르며, 또 연차적으로 가구의 분류법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않는 실정이다. 나라단위 및 都市部·郡部單位에서 가족규모의 비교를 시도한 것으로는, 우선 崔在錫씨의 「韓·中·日 三國 家族의 統計的比較」(『韓國家族研究』, 1966)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소규모의 수치가 실려있다.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1975)에도 마찬가지로 삼국의 비교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한국내의 각종조사를 자료로하여 山村·漁村·農村·小都市·大都市 순, 또는 漁村·農村·班村 순으로 평균 가족원수가 적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논고중에서 民村보다 班村家族이 소규모라고 지적되어 있는 점은 좀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대규모가 큰 함경도의 가족 특질을 분명히 하는 점과, 그리고 나서 東北日本과 비교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金斗憲 「朝鮮의 家族構成」(1935, 『韓國家族制度研究』 제5장중에 再錄)에는 「京城, 北鮮, 南鮮, 中鮮」의 지역 구분별로 가족구성에 관한 통계수치가 실려 있으나, 각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1934년 총 27교의 조선중등학교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서 지방별 평균 가족성원수는 「京城 8.18, 北韓 7.28, 中韓 6.96, 南韓 7.23, 全鮮 7.55」로 되어있다. 이들 학생의 가족은 대부분 중류 이상으로 계층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농업경제학자 盧東奎씨의 조사에 의한 수치 「南韓 5.47, 中韓 5.94, 北韓 6.14, 全鮮 5.78」도 인용 소개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수치에서는 명료한 「北多南少」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 점은 본고의 인식과 일치한다.

세대규모가 작은 지방간의 비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는 蒲生씨에 의한 비교가 하나의 시도로서 이미 나와 있으며 또 竹田氏도 활발히 이 문제에 관한 자료의 제시와 논점의 정리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民家類型 研究에서 圖1과 유사한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분포도가, 張保雄 「한국의 민가연구」(1981, p.65)에 의해 「東海 「일본해」 周邊의 五室型과 四室型의 分布圖」로서 제시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제주도내의 세대규모의 지역성의 문제점으로서 ① 제주도내 세대규모의 동서의 차는 무엇에 의한 것인가, ② 제주도 가족관행에 있어서 동서의 지역성이 존재하는가, ③ 제주도내의 이러한 경향은 圖1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大狀況」과 연속성이 있는 경향으로 간주 될 수 있는가,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島外와의 역사적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세대의 소규모성,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내에서도 서부지역의 세대가 특히 소규모라는 점에 관해, 최근의 濟州島 家族論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濟州島 家族研究의 現況

1. 日本으로부터의 接近⁷⁾

일본의 사회인류학·민속학분야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공포된 제주도 가족·친족의 조사연구는, 泉靖一 「濟州島」(1966)을 필두로 하여, 1970년대에 佐藤信行씨의 일련의 가족·친족연구보고가 있다. 佐藤씨의 논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濟州島の 가족 - C村의 事例에서」(1973)가 있다. 竹田氏は 1973년부터 제주도 조사에 착수하여 1978~9년에 「ばれるが」에 연재된 「韓國의 家族에 관한 一斷面」(저서 「木と雁」에 재수록), 「韓國家族에 있어서의 〈隱居〉에 대하여」(1980), 「나무기러기 - 한국의 사람과 집」(1983), 「韓國의 祖上祭祀의 분할에 대하여」(1984) 등의 논고에서 제주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984년이후의 竹田씨의 한국관계 논문은 死後結婚·死靈結婚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1979년에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蒲生씨가 전술한 바 같이 五島列島(및 西南九州)와 濟州島(및 한국)의 가족관행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福留範昭씨가 崔吉城씨들과 공동조

7) 최근에 있어서 일본인에 의한 한국의 문화인류학·민속학적 연구 현황에 관하여는 松本(1988)을 참고 바란다. 본고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櫻井哲男, 「소리」의 연구 -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음과 음악의 민속지」(弘文堂, 1989)는 저자의 다년에 걸친 제주 조사의 성과이다. 또, 井上和枝, 「조선 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歷史評論》 제424호, 1985), 朝倉敏夫, 「한국사회고 - 지역성에 관한 각서」(《후이루도》 제2호, 1987)에서 본고의 주제를 포함한 문제가 취급되어 있다.

사하여 加波島의 調查報告(崔吉城과 連名, 「濟州島 加波島의 家族과 祭儀」, 1983)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도내의 지역성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다. 가파도의 평균 가구인원은 4.21명(1984년 11월 1일 현재)으로 가구 규모는 중간위치에 해당한다. 1984년에서 다음 해에 걸쳐 제주도 동부지역에서 집중조사를 실시한 律波高志씨에 의한 「濟州島東部地域의 相續慣行」(1985), 「相續과 繼承에서 본 濟州島 家族」(1989)도 있다. 律波씨의 主調査地는 평균 가구인원의 4.93명(1984년 현재)으로 규모가 큰 쪽이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 연구중에서 본고와 특히 관계가 있는 것은 蒲生씨의 논문 이외에 竹田씨, 律波씨에 의한 성과이다.

竹田 坦: 竹田교수에게는 예를 들면 「西南日本の 가족관행」(1973)에서 엿볼수 있는 것처럼 奄美·沖繩까지도 시야에 놓은 일본 국내의 〈家族慣行의 地域性〉에 관한 일관된 문제의식이 있다.

저서 「木と雁」에서 「동일 울타리 내에 안채, 바깥채, 또는 본래 토지에 있는 舊居와 인접 택지에 따로 마련한 新居라는 식으로 양친과 장남 부부의 두 세대가 형성되어 別居·別食·別財의 다른 생활을 전개하기는 하지만 한집안으로서의 生活共同까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p.148)라고 제주도 가족관행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大間知篤三씨가 말하는 「複世帶制」에 比定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隱居」라는 관점에서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이 섬에서도 원래 〈隱居〉라 부를 수 있는 습관은 없었으며, 〈隱居〉에 해당하는 한국어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에 언급하여, 「일할 수 있는 한 움직여 자식이나 손자들 신세는 지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의 강하기」 때문에, 별세대를 형성하고 있어도 日本의 「樂隱居」의 양상과는 다르다(p.149)고 일본과의 상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드문 사례이지만 「日本의 隱居分家, 그 중에서도 특히 末子同居型 隱居分家를 상기시키는」 전승 등도 소개하여 「제주도 가족관행중에는 일본의 은거에 유사한 행위·사상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양친의 노후 별거 등을 지칭하는 정확한 로컬덤(地方名)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여 「민속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워」 동일 울타리 내에서의 별거는 그렇다치고 다른 지역에서 살림을 차리는 轉居는 비

교적 새로운 풍습이 아닌가 한다」라고 역사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p.153).

이러한 「〈隱居〉문제 하나만 보아도 제주도 민속은 단순히 한국 국내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본 민속학상의 과제를 해명하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라고(p.152) 竹田교수는 濟州島 研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律波高志 : 律波씨는 「相續과 繼承에서 본 濟州島 家族」에서 「分出歸還型·送出繼留型·單純繼留型」이라는 주목할 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분출귀환형은 부모가 미혼자녀를 데리고 分家를 반복 되풀이 하다가 최후에 本家에 돌아가 바깥채에 따로 사는 형이다. 송출계류형은 장남 부부와 한 울타리내 별채에 부모가 거주하고 차남 이하를 밖으로 내보내는 형을 말한다. 단순계류형은 실질적으로 장남만 있을 경우로 아들 부부와 한 울타리내에 거주하는 형으로, 종래 제주도에서는 단순히 부모와 아들 부부가 세대분리를 한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상속·계승과 거주의 관계에 다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었다. 그의 주장을 종합하면 ① 이러한 분거형태가 동일 부락에 혼재하여 있다는 점, ② 분출귀환형이 이상적인 형으로, 경제·건강면에서 지장이 있을 경우 송출계류형을 취한다는 점, ③ 제주도 북서부에서는 분출귀환형의 보고가 없다는 점, ④ 분출귀환형과 은거분가, 송출계류형, 단순계류형과 嗣子別居型의 韓·日對比의 지적 등을 들 수 있다.

2. 韓國에서의 研究狀況

濟州島 研究의 各分野別 動向概說과 文獻目録은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의 紀要, 「耽羅文化」에 분재되어 있다. 「解放後 濟州研究概要— 言文學·民俗分野」(1號, 1982), 「同Ⅱ— 歷史·考古分野」(2號, 1983), 「同Ⅲ— 社會科學分野」(4號, 1985)가 상세하다. 그중에서 「同Ⅲ」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申幸澈교수에 의한 「社會·人類學」분야의 개관이 있다. 또, 耽羅文化研究所로부터 「第二回 耽羅文化學術會議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開」(1983)가 나왔는데

그중에 李光奎씨에 의한 「社會學的 側面」이 있다. 여기에는, 가족·친족제도·친족조직으로 분류되어 종래의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여러 특징이 개괄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崔在錫의 「濟州島의 親族組織」(1979)에 관하여 金漢九씨가 쓴 서평(『韓國學報』 제19집, 1980)에서 시작된 논쟁에 대한 李光奎씨의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申幸澈씨에 의한 개관은 제주도 연구의 동향과 연구의 소재(所在)를 보다 상세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며, 李光奎씨에 의한 개괄은, 玄容駿·李光奎·佐藤信行·趙惠貞·崔在錫·金漢九 諸氏의 주로 家族·親族關係의 이에 대한 李光奎씨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 외 泉靖一 「濟州島」 및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의 각 권말에 「濟州島 關係 文獻目錄」 「濟州島 社會組織關係 文獻目錄」이 실려 있다.

申幸澈교수에 의하면 1960년대말까지는 민속지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그 중에서도 泉靖一 「濟州島」와 石宙明 「濟州島隨」가 주목할 만 하다. 1970년대는 사회학·인류학적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과 趙惠貞 「韓國海女漁村의 民族誌의 研究」(1979, 캘리포니아대학에 제출한 영문의 학위논문)가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가족·친족 연구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어 연구층의 확대와 연구대상의 다양화로 제주 연구는 보다 활성화되어 왔다.

해방후 최초의 제주사회에 관한 「社會·人類學的」인 접근으로서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查書—濟州島人口論」(1949)을 들 수 있다. 그는 또한 생물학자(특히 나비연구), 에스페란티스트이기도 하여 방언연구도 있다. 그의 업적목록은 石宙明 「濟州島資料集」(1971)에 실려 있다. 그에 의한 濟州島叢書에는 上記한 저서 이외에, 「濟州島方言集」(1947), 「濟州島文獻集」(1949), 「濟州島隨筆—제주도의 자연과 인문」(1968), 「濟州島昆虫相」(1970)등이 있다.

개인 총서로서는 그 외에 제주도민속박물관장 秦聖麒씨에 의한 「濟州島民俗叢書」가 있으며 「보배를 지키는 마음」(1982)에 자서전과 총서출판 활동을 포함한 經歷年譜가 실려 있다.

島外에 본부를 둔 제주도연구회로는 1978년에 발족한 濟州島研究會가 있다. 1984년에 회지 「濟州島研究」를 창간하여 1990년 6집까지 계속 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을 범위로 하는 종합적 연구단체는 각지의

문화원 등에 활동의 근거를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회원이 산재되어 있는 제주도연구회의 예는 유니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외에 東京에 본부를 둔 耽羅研究會(1985년 발족. 동년에 기관지 『耽羅研究通信』을 창간, 1989년에 『濟州通信』이라 改題, 1990년 12호까지. 1989년에 회지 『濟州島』 창간)⁸⁾와 關西地方에 본부를 둔 日本耽羅學會(1987년 발족. 1988년에 회지 『耽羅』 창간)가 있다.

제주도 공동조사 동향으로서는 玄容駿교수, 金榮敦교수 등 제주대학교 교수와 학생에 의한 민속지가 있다.(후에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에서 『濟州島 部落誌』 1집(1989) 2집, 3집(1990)으로 간행되었다.) 이에 앞서 1959년 서울대총장을 단장으로 한 제주도 종합조사단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인문과학 부문은 언어, 민속, 민요·전설, 역사·고고, 사회과학 부문은 사회, 경제, 지리, 수산업, 인구, 자연과학 부문은 식물, 지질, 보건, 기상의 각 반으로 나누어 70명 정도의 단원과 다수의 보조학생으로 구성된 대조사단이었다. 韓相福씨의 『제주도 종합학술조사(1959)개요』(『제주도연구』 제1집)가 있다. 1971년에는 한국문화인류학회에 의한 민속종합조사가 제주도에 실시되어 『한국 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편』(1977)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李光奎씨가 「사회」를 담당하였다.

1979년에 『제주도의 친족조직』을 발간한 崔在錫씨는 1955년과 1974~1978년까지 제주도조사를 실시하여 차례차례로 발표하여 온 논문 등을 정리하여 이 저서를 펴냈다. 그는 한국문화인류학회 『문화인류학』(제7집, 1975)에 泉靖一씨의 『濟州島』에 대한 서평을 실고 있다. 泉靖一씨는 『濟州島』에서 「제주도민의 신체형질, 역사, 문화 등에는 종래에 일반적으로 믿어져 왔던 것처럼 일본 및 몽고 영향은 적어(중략) 제주도는 어떤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朝鮮 특히 南鮮의 한 지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p.36)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과거에 일본과 제주도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崔在錫씨는 그 서평에서 泉씨가 제주도와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泉씨가 저서에서 반대하고 있

8) 《耽羅研究通信 合本 (제1호-제10호)》(탐라연구회, 1987)도 있다.

는 입장을 그의 개인적 입장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泉씨에게 「豊臣秀吉과 三韓征伐」(「旅と傳説」)이란 논문이 있다고 전제하여 그의 한국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으나(p.168), 泉靖一 著作集 제7권(1972) 소재 「泉靖一 <著作目録>」 및 「旅と傳説 別卷 總目次・執筆別索引」(1977)에 그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泉씨가 「妾家」의 모계적 경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崔씨는 「妻家」라고 소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崔씨가 이 서평에서 泉씨에게 찬의를 표하는 점은 다음 3항목이다. ① 결혼한 자녀는 양친과 별거한다. ② 토지는 均分 분할된다. ③ 제주도 종교는 이원적으로 유교적인 것과 무속적인 것이 있다. 이 서평 후에 崔在錫씨에 의한 본격적인 제주도 조사가 계속되어 「제주도의 친족조직」으로 결실을 맺게 되나 제주도내의 동서 지역차에 대해서는 문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예를 든 書誌로 다수의 제주도 가족·친족관계 논문의 소재를 알 수 있다. 입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 가족론의 개론은 상술한 것처럼 崔在錫, 李光奎 등, 申幸澈씨 등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소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여기서는 본고의 관심에 따라 우선 인구학적 분석을 한 姜相培와 李昌起씨의 논문, 세대규모를 작게 만드는 一人世帶의 조사분석을 행한 李昌起씨와 金惠淑씨의 논문을 고찰한 후, 제주도의 동서 지역차에 관해 결론적으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姜相培: 姜相培씨는 「濟州島内 人口에 관한 研究」(1975)에서 「한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과거 18년간, 4.3~4.8명으로 전국 평균 5.5명에 비해 낮으나 이것은 본도 출생율이 타도에 비해 낮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자녀가 결혼하면 분가시킨다는 풍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p.130)고 의견을 제시, 세대규모와 가족관행의 관련성에 언급하고 있다. 또 해방 후 4·3사건(1948년), 6·25사변(1950~1953) 때의 피난민 유입, 일본으로 밀항자(1950년대), 60년대말에 호남지방 대한밭에 따른 대량유입 등이 제주도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있으나 지역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미상이다.

李昌起: 李昌起씨는 「濟州島 家口の 크기」(1987)에서, 제주도 가구규모와

가족제도의 관계를 문제로 제기, 가구와 가족개념의 차를 설명하고 통계 이용상은 가구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冒頭에서 이야기한다. 泉靖一씨가 사용한 해방전의 『濟州島勢要覽』의 수치변동의 크기는 조사의 부정확함에 유래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국세조사의 수치를 채용하고 있다. 최초의 「朝鮮國勢調査」가 행하여진 1925년부터 제주도는 「전국」, 「육지」보다 평균 가구규모가 작았던 점을 지적하여 제주도 가족은 1920년대 이전부터 소규모였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필자의 견해와 동일하다.

제주도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에서 가장 현저한 경향으로서 一人家口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이 2.3(1960)~4.8(1980)%에 비하여 제주도는 9~11.12%란 높은 비율이다. 이 이유의 첫째로 장남이 분가를 하는 제주도 가족제도에서는 자녀를 모두 독립, 분가시킨 후 노부부 세대가 되지만 남편 사망후도 아내의 노동력이 없어져 자녀의 부양을 필요로 할 때까지 일인가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성의 死別率이 특히 높고 사별여성의 재혼율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사별여성이 자녀 모두를 독립, 분가시킨 후, 일인가구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가지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는 이혼율도 높지만 이혼여성의 재혼율도 높은 편이나 재혼할 때까지 자식을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死別女性の 非再婚〉이라는 지적은 앞으로의 문제로서 흥미로운 사실이다.

평균 가구인원수의 지역별 비교에서는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세 지역이 적고, 서귀읍·남원읍·포선면·성산면이 비교적 많다. 여기서 제주도의 서부지역과 동·남지역이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 지리적으로 그 중간 지대는 평균 가구규모에 있어서도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 결과는 필자도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바처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李昌起씨의 분석은 좀더 세부에 걸쳐 있다. 줄고와 李昌起씨의 이 논문의 간행 년월은 마찬가지로 1987년 2월이다.

李昌起씨는 서부와 동·남부의 가구 규모에 차이가 생긴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로 제주도는 조선조 시대에는

濟州牧·大靜縣(郡)·旌義縣(郡)의 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애월·한림·한경은 대정현에 속하여⁹⁾ 서부제주의 문화적 중심지였던 동·남지역은 정의현의 중심지 내지는 관할지역이었다. 오늘날에도 언어와 습관 등 몇가지 면에서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사회·경제적·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로 한라산을 경계로 하여 제주도 기후는 남과 북이 달라 따라서 농업조건이 서로 차이가 있다. 남쪽에서는 밀감 등 과수 재배가 발달하여, 과수 재배에는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구규모도 확대되는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센서스의 어느 해를 보아도 남제주군보다 북제주군에서 여성의 사별률이 높다. 평균 가구인원과 사별률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제주도 여성의 사별율은 「일제하의 島外移出·징병·징용, 그리고 해방 후의 4·3사건, 6·25」(p.20) 등의 제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李昌起씨가 지적한 이들 원인에 관한 설명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으나 앞으로의 논증이 필요한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첫째 지적에 대해서는 언어와 다른 습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가 있는가, 문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인가. 둘째 지적에서 가구규모의 지역성은 1920년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수재배는 상품 작물로서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할 수 있을까, 셋째 지적에 있어서는 북제주군에서 특히 여성의 사별률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북제주군에서 보다 많은移出者, 事件·戰爭에서 亡者를 내었는가¹⁰⁾ 하는 문제가 우선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9) 애월·한림·한경은 제주북에 속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10) 柳田一二(1976, p.90, 92)에 1924년 당시 일본으로 벌이를 나간자들의 출신 지역도(出稼者地域圖)가 게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서쪽 지역 출신자가 많다. 柳田은 동남쪽의 표선 중심구를 出稼者稀疎地域이라 하고, 그 이유로는 ① 도로·해상교통이 가장 불편하여 도외로 나가기 까지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점 ② 一戶當 평균 경지면적이 넓어 노동력이 부족하여 휴한 경지율이 높다는 점 ③ 가장 순박·보수적인 순농촌지역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p.93)

金惠淑: 金惠淑「濟州島의 一人家族研究」(1985)에 의하면 제주도 一人家族研究는 崔在錫씨「濟州島의 親族組織」에 수록되어 있는 조사분석이 최초이고 그 다음을 잇는 것이 본 논문이라 한다. 崔在錫씨의 제주도 조사는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논문은 조사지를 서부지역으로 삼고 있다. 金惠淑씨는 제주도 가족연구의 초점이 되어 온, 동일 울타리 내에서의 취사분리의 문제에 대하여 일인가족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인가족의 범위에는 일인가구, 비혈연의 식모, 고용인도 포함한 가구를 집어 놓고 있다. 한편, 아들이 군에 입대한 일인가구, 학업을 위해 일시적인 별거를 하고 있는 일인가구는 일인가족에서 제외시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조사지는 북제주군 서부지역, 해안 일주도로에서 1km정도 산쪽으로 들어간 자연부락 H이고 調查年은 1984, 1985년이다. 가족의 단위기준은 거주가 아니라 공동취사를 영위하고 있는가의 유무에 두고 있다.

H부락의 176 가족의 가족형태는 일인가족이 34.1, 부부가족 56.2, 직계가족 7.4, 방계가족 2.3%로 일인가족율이 매우 높다. 崔在錫씨에 의한 동부 S부락에서의 조사결과(일인가족 9.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며, 또 S부락에서는 방계가족이 없었는데 비하여 H부락에는 방계가족이 4례가 있으며 그것도 3례는 부계방계가족이 아니다.

H부락의 일인가족중에는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가구는 없고 일인가구와 일인가족이 일치한다. 일인가족 60사례중에서 55례는 여성 일인가족이다. 그 중 16례가 4·3사건 때 남편과 사별하고 있다. 남편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주해버려서 일인가족이 된 특이한 사례도 있다. 남성 일인가족이 적은 이유로서 취사가 불편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여성 일인가족이 많은 이유로는 남성보다 장수하며 생활력이 강인하여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성에게 예속되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몇가지 점을 언급하고 있다. 남성 일인가족 5례중, 1례는 자식연령이 낮아 경제력이 약하여 부양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그 외 4례는 자녀들 가족이 동일 울타리내에 거주 또는 독립하여 살고 있으나 별거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부모가 자식들을 구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식들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식이 남성에게도 작용한 까닭이라고 설명한다. 동일울타리

내에서 자식들과의 취사분리는 10例뿐이고 또, 장남 가족과의 한 울타리내 별거는 3例뿐이다. 따라서 노쇠하여 자활력이 없어져서 자식의 부양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장남이 보살핀다도 하는 원칙은 없고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양을 한다.

노인 일인가족은 마을내의 자생적인 附加戶制度¹¹⁾에 의해 마을 경비 분담금과 노역봉사 면역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H마을에서는 자식 가족과 동일 울타리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족·일인가족은 자식가족과 동일가족으로 간주되어 자식 가족쪽에서 분담금과 노역봉사를 부담한다. 자식가족과 다른 곳에 살고 있을 경우 노역봉사는 70세 이상은 면제되나 분담금은 경제력 여하에 따른다. 70세 이하라도 분담금이 면제되는 예도 있다. 부가호제도의 적용기준은 지구별로 차이가 있다.

동부지역 S마을에 비하여 서부지역 H마을에서 일인가족비율이 높은 원인을, 양쪽마을에 있어서 초혼 해체후의 재혼경향이 차이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S마을에서는 재혼율이 높는데 이것은 유교적 원리의 지배가 약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H마을에서 사별후 비재혼경향은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는 李昌起 씨에 의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金惠淑씨는 혼자서 사는 제주도 노인의 의식면의¹²⁾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립성이 강하고 자녀와의 갈등이 적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생활에 대한 비관적 의식도 적으며 자신의 건강문제에 강한 관

11) 崔在錫(1979)은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과 노년의 여성 혼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 부역과 마을세를 면제해 주는 <附加戶> 제도도 핵가족 제도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제도라 할 수 있다'(p.84)

12) 제주도에서 일저기 老年學을 연구한 韓昌榮의 <濟州道老人論攷> (韓一文化社, 1978), <濟州島散考> (韓一文化社, 1982), <경노사상과 노인복지> (韓一文化社, 1983)가 있다. 이러한 저서속에서 제주도 노인의 정신이 다각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남정신」론은 제주도 전통사상(탐라정신)의 현대적 재생의 한 초점인데, 이 논의의 소재와 개요가 세권의 저서를 통하여 규명되어 있다. 저자 자신의 정리에 의하면 「주남정신」은 자립성·정직성·강인성·미래성·계획성·장수성 등의 개인적 특성을 갖는 제주도인의 근검·절약생활의 생활철학으로 간주된다.(1982, p.254)

심을 지니고 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쓸쓸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쇠와 더불어 반드시 찾아 오는 단계로서 달관하고 있다고 한다. 金씨는 관찰자로서 이러한 가족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더라도 식사·세탁·침상의 개선을 사회적으로, 한편으로는 자녀의 의식개혁까지 진전시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3. 濟州島의 東西 地域性에 대한 언급

필자가 제주도의 세대규모에 대하여 통계를 조사한 것은 1983년으로, 그때 동서의 차를 의식하여 이듬해 1월에 短時日間이나마 제주도를 방문하여 玄容駿교수와 秦聖麒 제주민속박물관장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참고문헌 등의 시사를 얻어, 그 후 1987년 여름에 제주도 일주, 1988년 여름에 서부 W里의 試掘的인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 사이 제주도 내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 동서의 가구 규모와 가족 관행에 이러한 지역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감상이 일반적이었다. 실태에 차가 없다고 한다면, 인구조사 과정상의 처리면에서 생긴 차—동일 율타리내의 「複世帶」를 한세대로 하는가 두세대로 하는가—에 의한 것으로 단순한 숫자상의 현상일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1925년뿐만 아니라, 1984년의 통계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실태차의 반영으로 본다. 이미 전술한 바 처럼 李昌起씨의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동·남부와 서부의 차가 지적되었고 金惠淑씨를 찾아갔을 때도 즉석에서 동서차에 동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점은 津波高志씨도 문제시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에 이를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논문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적으로는 1946년이래 현재까지 남북 두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제주군과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는 남제주군 두지역이다. 이 남북 이분구획은 제주도 기후에 합치하여 남풍을 받아 남부에서는 비가 많다. 『韓國地名總覽』에 의하면 조선왕조 시대인 15C전반부터 북은 濟州牧 하나, 남은 동측의 旌義縣과 서측의 大靜縣이 둘

로 나누어져 있다. 그 전은 旌義縣이 東道, 大靜縣은 西道였다고 한다. 이들 구분도 세대규모의 동서차와는 반드시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秋葉隆씨의 「遮歸文化圈」(「濟州島에 있어서의 蛇鬼信仰」, 1932)은 거의 旌義縣 범위와 겹친다. 秋葉씨에 의하면 遮歸文化圈은 「제주도에 있어서 蛇鬼信仰으로 象徵할 수 있는 山人社會의 文化」(p.110)라 하고, 적극적인 관련성은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함경북도 가옥의 화로를 연상시키는 가옥도 있다(p.107)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張範根씨의 「韓國의 民間信仰 論告篇」에서는 무당은 「東半部에 수가 많은 듯하며 또, 많은 신방들도 동반부에 무속의 전승이 보다 많다고 이야기한다」(p.68)고 되어 있다. 그 밖에 여러 사람들과의 면담중에서 동서차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교시를 얻고 있을 뿐이다. 崔玄植씨에 의하면 생활풍속에 동서차가 있어 예를 들면 정월 명절을 서쪽에서는 新歷으로 쇠고 동쪽에서는 陰歷으로 쇠다. 高光敏씨에 의하면 서쪽에서는 그리스도교인이 많고 동쪽은 보수적으로 오래된 관습이 남아 있다. 康東均씨에 의하면 동쪽에 名門이 많다.

제주도의 특색인 해녀어업과 여성의 자립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해녀의 분포는 동쪽에 많다. 元學喜씨에 의하면,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북서부지역의 해녀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해녀에 관한 연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金榮敦, 玄容駿, 秦聖麒 제씨들의 제주도 민속연구는 취급하지 않았으나 제주도 동서의 지역성 연구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민속지적 연구의 검토, 인구이동의 역사적 분석이 과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13) 元學喜(1988), pp.112~114

〈引 用 文 獻〉

- 秋葉隆 AKIBA TAKASHI “제주도의 蛇鬼信仰—遮歸文化圈의 시도”, (『靑丘學叢』 제7호, 1932).
- 張保雄, 『韓國의 민가연구』 (寶晉齋출판사, 1981).
- 張壽根, 『韓國의 민간신앙 논고편』 (金花舍, 1974).
-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민주서관, 1966).
- _____, “泉靖一著 濟州島”, 『文化人類學』 제7집 (韓國文化人類學會, 1975).
- _____, 『濟州島의 親族組織』 (일지사, 1979).
- 崔吉城·福留範昭 FUKUUOME NORIAKI, “제주도가파도의 가족과 제의” 『崔正如博士 頌壽紀年民俗語文論叢』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 蒲生正男 GAMO MASAO, 『日本人의 생활구조서설』 (誠言書房, 1960).
- _____, 『增訂·日本人의 생활구조서설』 (베리칸사, 1978재간)
- _____, 『日本の 집과 마을』 大林太良監修 『東아시아—日本·中國·朝鮮』(平凡社, 1979).
- 泉靖一 IZUMI SEIICHI, 『濟州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66); 『泉靖一 著作集 I』 讀賣新聞社, 1972에 재록)
- 泉靖一·蒲生正男, “日本社會의 地域性” 『日本地理新體系』 제1권 (河出書房, 1952).
- 秦聖麒, 『보배를 지키는 마음』 (悅話堂, 1982)
- 姜相培, “濟州道內的 人口에 對한 연구”, 『濟州教大論文集』 제5집(1975).
- 金斗憲, “朝鮮의 家族構成”, 『朝鮮』 238호(조선총독부, 1935).
- _____,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朝鮮家族制度研究』 (乙酉文化社, 1949재간)
- 金漢九, “崔在錫著 濟州島의 親族組織” 『韓國學報』 제19집(1980).
- 金惠淑 “濟州島의 一人家族研究”, 『論文集』 제20집 社會科學篇(濟州大學校,

1985).

李昌起, “濟州島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제6호 (1987).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 1975).

_____,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韓國文化人類學會, 1977).

_____, 『社會學的側面』, 『제2회 耽羅文化學術會議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3).

桒田一二 MASUDA ICHIJI, 『桒田一二 地理學論文集』 (弘詢社, 1976).

松本誠一 MATSUMOTO SEIICHI, “韓國의 小家族에 대하여” 『家族研究 年報』 제12호 (家族問題研究會, 1987a).

_____, “民籍調査와 <隱居>” 『韓』 제107호 (韓國研究院, 1987b).

_____, 『日本에 있어서의 文化 인류학적 한국조사의 전개 1960~1980 付 韓國研究者別 著述目錄 日本人: 文化人類學·民俗學篇 1965~1987』 『東洋大學社會學部紀要』 제25~2호 (1988).

內藤莞爾 NAITO KANJI, “五島列島와 濟州島의 가족 一末子相續制의 基盤”, 『山岡榮一教授古稀記念論文集』, 『地域社會學的 諸問題』 (晃洋書房, 1979a).

內藤莞爾, 『五島列島의 그리스도敎系家族』 (弘文堂, 1979b).

佐藤信行 SATO NOBUYUKI, “濟州島의 가족 - O村의 사례에서”, 『東洋文化』 제53호 (1973).

石宙明, 『濟州島資料集』 (報晉齋, 1971)

申幸澈, “社會學·人類學” 『耽羅文化』 제4호 (1985).

竹田旦 TAKEDA AKIRA, “西南日本에 있어서의 家族慣行”, 『日本民俗學』 제90호 (1973).

_____, “韓國家族에 있어서 <隱居>에 대하여”, 國分直一博士古稀記念論文集 編纂委員會編, 『日本民族文化와 그 주변 歷史·民族編』 (新日本教育圖書出版, 1980).

_____, 『나무기러기-한국의 사람과 집』 (사이언스社, 1983)

_____, 『한국의 조상제사의 분할에 대하여』, 『民俗學評論』 제24호 (1984).

津波高志 TSUHA TAKASHI, “濟州島동부의 相續慣行”, 『比較民俗學會會報』 제3호(1985).

_____, “相續과 계승에서 본 濟州島의 가족”, 『地域文化研究』 제4호(梅光女學院大學地域文化研究所, 1989).

元學喜, 「濟州島에 있어서의 해녀어업의 변모와 생산형태」, 立正大學 日韓合同學術調查團, 『韓國濟州島의 地域研究』(立正大學地理學教室, 1988).

善生永助 ZENSHO EISOKE, 『朝鮮의 姓氏와 同族部落』(刀江書院, 1943).